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챙기셔서 말씀 묵상, 성경 암송, 성경 일독과 함께 순모임 자료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공동의회 : 2월 10일(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5. 오늘 오후모임은 없습니다. 즐거운 교제시간 되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1/27)	다음 주(2/3)	2/10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강진 서리집사	박철호 서리집사	이강진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	황근하 성도	박철호 서리집사
성경 봉독		황근하 성도	오숙현 성도	이미정 성도
식사 준비		이승재 순	이윤경 순	오숙현 순
정리		이강진 순	오숙현 순	이윤경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제6권 5호 2019.2.3.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예 배 부 름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송 영	찬송가 2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49장, 찬송가 303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05편 1-19절	황	근	하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롬 12:1-2	김	윤	기
[은혜로 빛는 인생]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309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강	진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기 도:
본 문: 오늘은 오후모임이 없습니다.
설 교:
합심기도:
주기도문: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찬 송:
본 문: 이번 주는
설 교: 수요모임이 없습니다
기 도 회:
주기도문: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00분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신앙도서강독	주일 오후모임 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5주일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義)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罪責)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4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 말씀 요약: 롬 12장 1-2절, 은혜로 빛나는 인생

1.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라

신자는 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부름 받은 사람들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1절). 신자는 과분한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롬 9:15).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의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신 9:6).

2.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마땅한 반응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셨듯이, 온 세상을 향해서도 주권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긍휼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롬 3:20,22,26).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1,2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3.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사랑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롬 13:8-10). 신자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첫째로, 자기 자신과 둘째, 교회 지체, 셋째, 우리 주변 사람들, 결국 전부입니다(롬 12:3-21). 또한 위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인정해야 합니다(롬 13:1-7). 이처럼 신자가 합당한 예배로써 사랑해야 할 대상은 경계가 없습니다. 신자의 사랑은 대상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음으로 이 사랑의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롬 13:14). 신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나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